

복상사(腹上死)

- 근육경련, 심장마비에 대하여-

김 사 연 · 인천 만수당약국, 한국문인협회 회원

어린 시절, 냇가에서 미역을 감다가 발가락이 뻗뻗해질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쥐가 나서 그런다'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갔다.

어떻게 큰 쥐가 발가락 속에서 태어나는지 궁금했다. 그때만 해도 저림증 '쥐'와 생쥐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이 증상은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수영을 하거나 임신중, 혹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다. 쥐가 나는 원인은 몸 안에 나트륨(Na)이나 칼륨(K) 등의 전해질이 부족하여 근육세포가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을 때도 쥐가 일어난다. 당뇨병 환자의 20~30%는 인슐린 대사 이상으로 인해 취침 시에 많이 일어난다.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도 몸속의 칼륨이 줄어들어 쥐가 일어난다.

임산부의 경우는 전해질과 비타민 B₁이 부족하거나, 무리한 보행으로 인한 신경과

민 등이 원인이 된다. 류마티스 등 관절에 장애가 있으면 근육운동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쥐가 나며,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에 부담을 줘도 쥐가 일어난다.

쥐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강한 수축을 일으키는 순간에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므로 잠시 후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 심한 경우는 수축된 근육을 정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거나 온탕에 들어가면 쥐가 나는 것을 잡을 수 있다.

팔을 베고 잘 때 혈관과 인대가 압박되어 쥐가 나는 수도 있다. 이것은 기·혈·수의 순환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마사지를 해주면 회복된다.

손을 가슴 위에 얹어 놓거나 높은 위치에 걸치고 잘 때 쥐가 나는 경우는 빈혈로 인해 혈액이 말초 혈관까지 순환하지 못한 때문이므로 팔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손끝 방향으로 쓸어 내려준다.

간혹 성관계 도중 손발이 저려 고생하는 여성이 있다. 이것은 빈혈로 허약한 체질

이면서 말초신경에 과격한 충격이 가해진 때문이다. 심한 경우는 성교 중 사망하는 복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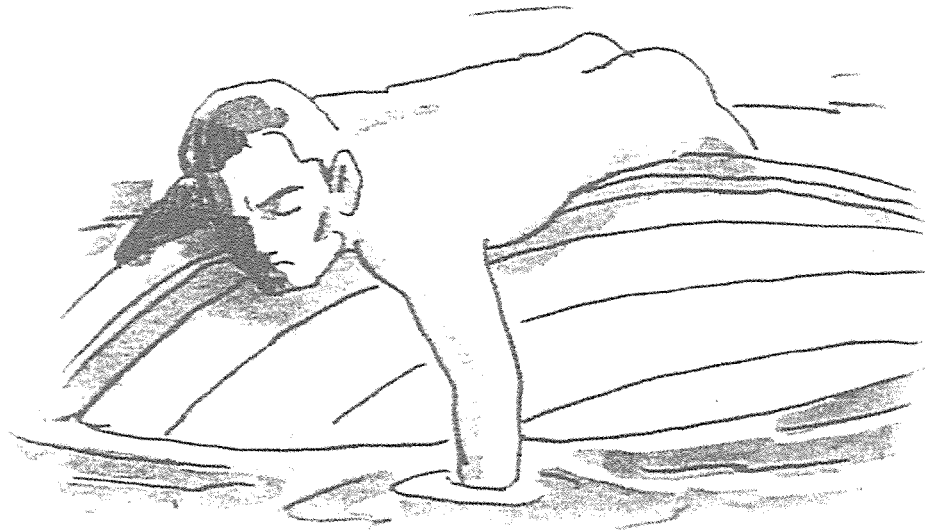
복상사란 연인의 몸 위에서 심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 마비란 쥐가 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심장마비는 심한 운동으로 인해 폐와 혈관에 산소가 부족해지므로 호흡곤란과 혈액 순환 장애가 생겨 심장운동이 멈추는 증상이다.

이런 과격한 운동은 부부 사이보다 불륜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한 망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내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 주셨던 Y교수님은 첫 강의 시간에 부부관계 시 사고가 났을 때의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 사고란 복상사와 비슷한 증상으로, 격하게 성관계를 치른 남녀의 성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에 예로부터 여염집 규수는 신방에 바늘을 지참하고 들



어갔다고 한다. 합방중 만에 하나 일이 벌어지면 신부는 신랑의 이마 한가운데를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신비스런 현상이기에 과학적으로도 해명이 어렵다.

이 특이한 질 수축 운동을 보조개가 파이고 항문 괄약근이 수축하는 생체 운동에 비교해야 할지, 중풍으로 마비된 수축이나 간질 등 경련이 일어났을 때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원상 복귀시킬 수 없는 근육 운동에 비교해야 할지 난감하다.

심장마비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 주기 위해 심장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피가 잘 안 통하면 심장 근육에 빈혈이 생겨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일어난다.

협심증은 가슴 중앙에서 통증이 시작되어 왼쪽 어깨에서 팔 부위로 옮겨간다. 이때 사지, 손가락, 목, 턱, 이빨이 아플 수도 있다. 통증은 불쾌감을 수반하며 '꽉 죄어드는 것 같다, 콧코끼른다, 답답하여 소화가 안된다'는 등의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

통증 발작은 3~5분간 지속된 후 사라지며, 운동 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공포, 흥분, 꿈을 꿀 때, 갑자기 추워졌을 때 나타난다. 협심증은 급성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주사하면 즉시 사라지고 '인데탈' 등 심장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비슷하나 강도가 심하며 1~2시간이나 지속된다. 협심증은 운동 시에 나타나지만 심근

경색증은 휴식중에도 일어난다. 심근경색은 협심증에서 볼 수 없는 호흡곤란, 기침, 전신피로, 구토, 피부 창백,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나타내며 평소에도 머리가 어지러운 등 허약한 증상을 나타낸다.

사랑과 정열을 심장 모양의 문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랑이 너무 넘치면 피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정열이 한순간 사그라들면 가뭄의 연못처럼 혈관이 메말라 심장에 무리가 오게 마련이다.

특히 음력 4월생과 5월생은 심장이 약하며 맥을 깊으면 부정맥 현상이 나타난다. 맥박이 일정하지 않고 높았다 낮았다 하는 대맥(代脈)과 맥박이 뛰다가 한참 동안 뛰지 않는 결맥(結脈)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결맥은 양기 부족인 경우에 나타나며 위험한 증상이 아닐 수 없다. [2]